

불황에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해지 급증

폐업·사망때 복리 이자로 공제금 지급받는 상품

지난해 1만여건 해지…공제금 담보 대출도 늘어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경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41)씨는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힘든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님마저 떨어져 장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지난 연말 보험을 해지해서 생활을 유지했지만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들었던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는 1만311건(해지금액 498억원)에 달했다. 1만311건에 달하는 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자금을 찾아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407건(19억원)에 불과하던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는 2011년 1042건(42억원), 2012년 2158건(72억원), 2013년 4356억원(128억원), 2014년 5986건(230억원), 2015년 7241건(330억원) 등

노란우산공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폐업이나 사망시 복리 이자율을 가산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 상품이다. 특히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부금은 압류가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최후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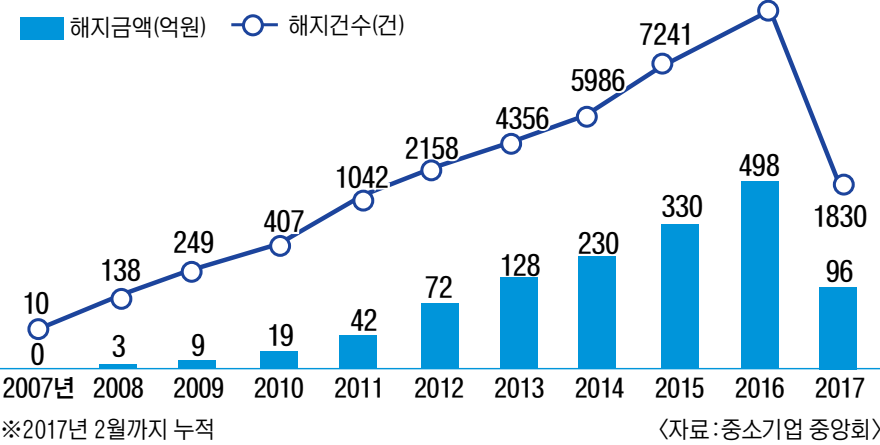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해지가 급증, 지난 2월말 기준으로 1830명(96억원)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했다.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데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소득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일명 김

노란우산공제 해지 추이



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중 앙회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0%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65%는 매출이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33%가 사업 축소, 30%는 폐업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노란우산공제 대출도 급증했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규모는 4193억원으

로 1년 전에 비해 37.7%나 급증했다. 대출 건수도 5만2052건을 넘어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2만1056건, 전남 1만7676건 총 3만 8732건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5월까지 ‘카드 무이자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3월을 맞이하여 광주은행 KJ카드 이용고객 중 개인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KJ카드 쓸쓸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골프장(주말), 학원, 서점 등 이용시 최대 1만5000원 캐시백 서비스와 가전, 가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여행 고객을 위해 제휴여행사를 이용한 해외여행시 패키지여행 최대 10% 할인 및 무이자 5개월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도 ‘루스톤빌라앤호텔’을 100명에게 최대 72%까지 특별할인 혜택을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이벤트 등록 고객에 한하여 2017년 연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캐시백 해드리는 ‘365일의 약속’ 행사와 이벤트 등록 전·후 100일간 비교 후 추가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을 캐시백 해드리는 ‘100일의 약속’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시작의 달인 3월을 맞이하여 KJ카드 고객들에게 그 어떤 카드보다 실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쓸쓸한 이벤트를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에게 사랑받는 광주은행과 KJ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 1588-33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

무안 오통지구 사업자 공모 지역 건설사 참여 촉구

주택건설협, 전남개발공사에 공문 “컨소시엄 구성해 참여”

남악 오통지구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지역 업체 배제’ 논란(광주일보 2월21일자 14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사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회장 박재홍)는 14일 남악 오통지구 공동주

택 사업을 공모한 전남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오통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지역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수년째 전국의 주택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원활한 택지수급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번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지역건설사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지역 내 고용창출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남악

오통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 전남개발공사가 1차 공모에서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내용을 바꿔 재공고했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볼 때 사실상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공모였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급순위 제한을 없앤 뒤 재공모해 11개 업체가 의향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은 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현재 심사자 진행중이며 조만간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3.78 (+16.19)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1)

↓ 코스닥 614.12 (-1.47) ↑ 환율 (USD) 1148.80원 (+4.40)

금호타이어 인수전 법적 공방 예고

박삼구 회장 “채권단 컨소시엄 불허 시비 가릴 것”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간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4일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식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청을 무시한 채 한 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고 있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전날 언론 설명회를 열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주주협의회는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면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약정상 주주협의회가 16일 이전에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 조건을 통보하면 박 회장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법적 갈등으로 번질 경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역 경제계에서는 일정 차질과 지역 연구 기업을 중국에 뺏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 아닌가”라며 “국내 타이어산업 전반에 미칠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중국이 사드를 계기로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내부에서도 더블스타 인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한 직원은 “이전에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고용 불안 우려가 크다”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기술 유출, 투자 감소,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中企 10곳 ‘IP 스타기업’ 선정

지식재산센터 수출 기업 육성

광주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10개 기업을 신규 글로벌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IP 스타기업은 해외 진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새로 선정된 IP 스타기업은 (주)이슬테크(대표 송종운), (주)씨지코어(김철우), 아이오솔루션(주)(양국현), (주)에니젠(김재일), 티비엠(주)(정재웅), 대경보스텍(주)(최미경), (주)탐인프라(양홍

석), (주)디알텍(정명욱), (주)포토닉스 트레이드그룹(공대원), (주)드림씨엔지(송장급)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는 향후 3년간 최대 2억1000만원(연간 7000만원 한도)까지 관리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국내외IP 컨설팅과 해외권리화, 특허기술 시제품제작, 비영리권 브랜드개발, 글로벌 IP경영전략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IP 스타기업은 올해 10개 기업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총 97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66개 기업을 졸업 성장시켰다. /김대성기자bigkim@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